

15~20세기 아우른 북간총서 햇빛

훈민정음·몽학필독 ... 다시 숨쉬는 629책, 하버드도 샀다



1 참빛아카이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한영 대표. 미국 명문 대학에 보낸 629책은 저 뒤에 보인다. 2 「몽학필독」 표지와 기사에 인용한 구절이 있는 「몽학필독」 본문.

/신인섭 기자

‘치마나·비단과 명주로 ㅎ·ㅎ·ㅎ 것보다 조선무명으로 ㅎ·ㅎ·ㅎ 것이 매우 좋습니다’

1912년 천도교에서 발행한 교과서인 「몽학필독(蒙學必讀)」에 나오는 표현이다. 김한영(58) 참빛아카이브 대표는 지난해 7월 1446년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1969년 발간한 「국민교육헌장」까지, 523권의 편차를 두고 한국에서 나온 629권의 「교과서」를 영인 북간본으로 냈다. 「참빛북간총서 629책」(이하 629책)이다. 「훈몽자회」 「상감행실도」 「노동아학독본」 「보통학교교과서」 「마루이와월수」 「반공독본」 등이 새롭게 살아났다. 일본어로 돼 있어도, 이념에 치우쳤어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교재들이다.

최근 미국 프린스턴·하버드·에일 등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수천만 원씩 들여서 「629책」을 샀다.

김 대표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중 「몽학필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를 지난 16일 경기도 양평 산자락의 ‘참빛아카이브’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무실이라기보다 고서 보관소처럼 보였다.

15억 중 8억은 사비로 아직도 빚 독촉 - 「몽학필독」을 왜 그렇게 아끼나.

“「몽학필독」의 유전(流轉)은 한국 역사의 한 단면이다. 일제시대 연해주로 간 선각자들이 사범학교 교재로 썼다. 우리나라에 한 권 남아 있다. 그런데 서적 정보를 알 수 없다. 가장 맨 앞과 맨 뒷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원본 형태로 된 「몽학필독」이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1930년대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가져간 것이다. 카자흐스탄 도서관에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1주일 뒤 답이 왔다. 사용료 1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연히 난다고 했다. 어찌 된 일인지 온라인 송금이 막혀 있었다. 국제우편으로 100달러를 보냈다. 이미 지 파일을 받아 북간할 수 있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민족사를 더듬을 수 있는 책이라 그정

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 - 왜 북간본에 매달리나.

“미대에 들어갔다. 서양화를 포기하고 미학을 공부했다. 시간강사로 전전했지만 내게 맞지 않았다. 이슬람 필사본을 접하고 유럽의 서체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가만, 우리 것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생각했다. 상감행실도·명심보감 등 대중서를 민간에서 목판으로 인쇄한 방각본(坊刻本)이 있었다. 방각본 이전까지는 지배계급이 지식을 독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국어독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일장기 삽화와 일본어로 가득했다. 국어라면 한글이 있을 줄 알았다. 소홀하면 안 되겠다 싶어 우리 교과서를 찾았다. 우리의 훌륭한 문화자산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다. 이게 「629책」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어 교과서가 ‘참된 빛’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참빛아카이브’라는 이름이 태어났다고 말했다.

- 비용과 기간이 만만치 않았을 테다.

“15억원이 들었다. 절반은 내 사비를 들여, 나머지 절반은 인쇄를 맡은 한국학술정보원이 냈다. 아직도 빚 독촉을 받고 있다. 아내도, 아이들도 말렸지만 포기한 상태다(웃음). 5년 6개월 걸렸다. 이런 일은 반쯤, 아니 거의 완전히 미쳐야 할 수 있다.”

- 훈민정음이 629책의 001번, 그러니까 첫 책으로 나와 있다. 훈민정음도 교과서인가.

“그렇다. 한글 창제 원리를 적시하지 않았다.”

- 미국 대학에서 629책을 샀다.

“최근 프린스턴·하버드·에일·듀크·UCLA에서 구매했다. 며칠 전에는 미시간 주립대에서도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도쿄대·리트대에서도 사겠다고 했다. 5집으로 구성된 629책 중 일부를 산 뒤 추가로 구입하는 형태다. 특히 UCLA는 5000만 원인 종이책에 전자책까지 더해 총 8500만 원을 들었다.”

프린스턴대 도서관의 이병학 사서는 “629책은 프린스턴대의 한국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김한영 참빛아카이브 대표

당대 교과서·한국학 정수 자부심

‘5년반 씨름’ 끝 작년 1차분 펴내

‘몽학필독’은 카자흐서 찾은 원본

프린스턴·에일대 구매, 도쿄대 예약

난중일기·대동여지도 등 2차분 구상

001번 ‘직지’는 완성, 3년 내 낼 것

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629책은 지난 500년간 한국인들의 영혼에 각인된 교육자료의 정수를 모았다”며 “민족 문화의 전파와 대중 공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에 자료 100% 기부체납하기로 - 한국 대학이나 관련 기관 연락은 없다.



숫자로 보는 참빛북간총서

- 66 제작 개월 수(2014년 초부터 5년 6개월)
- 100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기념 제작
- 629 참빛북간총서 총 책 수
- 8만 629책의 총 지면 수
- 15억 제작 비용(원)

“국내에서는 교육개발원·한국박물관·서원대·계천기독교도서관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덩치가 워낙 큰 총서라 구매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대학의 경우에는 기부와 펀딩을 통해 구매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 아쉬운 점도 있었다.

“교과형 도서라는 틀을 유지하려 보니, 꼭 포함하려는 책을 뺐다. 현실적 제약으로 해방 이후의 북간 책이 빠져 완결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 이번 629책이 참빛북간총서 1차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2차, 3차분도 있다는 얘기인가.

“1차분은 참빛북간총서가 공식 명칭이다. 2차분은 ‘노아옛책’(느리고 아름다운 옛 책)이란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다. 교과형 도서인 1차분에서 빠진, 민족의 이야기가 서린 삼국유사·삼국사기·난중일기·대동여지도 등 300~400권을 아우르는 게 될 것이다. 그 중 001번인 ‘직지’ 북간본은 이미 완성했다. 2~3년 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 629책 기부도 했다.

“전남 장흥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준 그 학교에 기부할 것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의 로스 킵 한국학연구소장이 몽학필독에 관심을 가져 629책 PDF를 주기로 했다.”

- 지난 5일 정동균 양평 군수를 만났는데.

“30여년 모은 자료들을 개인이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부형식으로 양평군에 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629책 북간본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기부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100% 기부 체납할 것이다. 단, 그 쓰임새는 내가 정한다는 조건이다. 그 외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북한에도 보내고 싶다. 1945년 이후로 북한 쪽 교과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 길게 보고 있다.”

미국 대학 등 해외에서 학술 가치를 알아보고 구매를 잇따르자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참 좋다”고 말했다. 그때 기사 앞머리에 인용한 「몽학필독」의 ‘매우 좋습니다’란 표현이 떠올랐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기사입니다>
/김홍준 기자 rirrim@joongang.co.kr